

가시 없는 음나무 돌연변이체 발견

- 농·산촌 소득증대를 위한 계기 마련 -

산림청 임업연구원(원장 서승진)에서는 노화방지에 효과가 있는 Rutin이라는 황산화 물질이 다량함유 되어 있고, 맛과 향이 뛰어나 최고급 천연식품으로 수요가 급증하는 음나무 새순을 손쉽게 생산할 수 있는 “가시 없는 음나무”를 발견하였다.

- 최고급 목재로 이용하기도 하는 음나무는 이른봄에 입맛을 돋아주는 새순을 생산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줄기나 뿌리까지 한약재로 사용되고 있어 한 나무 당(수령 80년, 수고15m, 흉고직경 40cm) 약 50만원 정도의 수익을 올릴 수 있는 “돈나무”로 알려짐에 따라 천연분포지 자원이 급격히 감소되고 있는 추세이다.
- 이에 따라 대책마련에 나선 임업연구원에서는 소멸되는 음나무 자원

을 복원하고 농·산촌 소득증대 일환으로 1996년부터 전국을 대상으로 생장과 수형이 우량하고 양질의 새순 생산이 가능한 200본을 선발·증식하는 과정에서 가시가 전혀 없는 음나무 2본을 발견하였다.

- 음나무 새순은 부가가치가 높은 농·산촌의 특산물이나, 가시가 있어서 재배를 통한 새순 생산에 많은 어려움이 있었으며 또한, 종자는 대부분 쪽정이며(충실종자율 5%) 얼마안되는 충실종자도 씨뿌리기를 하였을 때 싹이 트지 않아(발아율 7%) 보급하는데 어려움이 있었다.
- 이러한 문제점들은 임업연구원에서 육성한 “가시 없는 음나무”를 가지고 최근에 개발된 “음나무 씨뿌리기 방법”을 이용한다면 모두 해결할 수 있다.